

일본 고대 복식에 미친 백제복식의 영향

김문자
수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A study on the influence of Baekje costumes on Japanese costumes in ancient times

Moon-Ja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won University
(투고일: 2012. 1. 7, 심사(수정)일: 2012. 3. 18, 게재확정일: 2012. 5. 25)

ABSTRACT

In ancient times, immigrants from *Baekje* wore various kinds of costumes that provided technological and aesthetic guidance for the Japanese costume, which has been modified and changed in Japan. The clothing and ornaments were strongly influenced directly by costumes of the *Baekje* period; therefore, many of the Japanese costumes at that time were crafted in the *Baekje* style. Through the antique records, paintings of tombs and bequests, we were able to find similarities between *Baekje* and Japan costumes in these categories: clothes, headgear, belt hooks and belt plaques, bronze shoes, and ornaments. (1) Clothes : They wore high-shaped hat and jacket(襦) and trousers(袴) tied the bottom. (2) Headgear : There was a gilt bronze Conical Cap attached to the long tube with terminals in the shape of a hemisphere. (3) Belt hooks and belt plaques: There were horse-shaped belt hooks in mane styles and a checkered pattern on the lower part of the haunch and a belt Plaque shaped like the face of an animal. (4) Gilt bronze shoes: They were made with the style that had two side plates fixed in the instep side and heel-side. (5) Ornaments : They were made with flower-shaped plaques and spiral-shaped decorations. One earring was made with a three-winged pendent that were connected in a chain style and the others were in unique forms that were made by connecting narrow rings and a heart-shaped pendent.

Key words: conical hat(변형모), flower-shaped plaques(화형장식품), gilt bronze shoes(금동리), horse-shaped belt hooks(마형대구), spiral shaped decoration (나선형장식품)

I. 서론

한반도의 삼국은 고대 일본¹⁾과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는 왜(倭)²⁾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사료상 양국 사이에 문화적, 정치적 교류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일본 학계에서는 왜 왕권에 백제가 종속되었다고 보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백제가 선진문물을 왜에 전해주고 왜는 백제에 대하여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³⁾

특히 백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 최신의 문화와 기술을 전한 사실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금석문 자료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있다. 불교 미술이나 고고학분야에서도 황혈식 석실분이나 기와 연구를 통해 일본속의 백제문화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⁴⁾

우선 『日本書紀』내에 기록되어 있는 왜의 한반도 군사 파견기록을 분석하면, 모두 왜가 주체가 되어 활동한 것이 아니라 백제가 주체가 되어 수행한 전쟁에 지원군의 형태로 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같은 기간 내에 있었던 백제에서 일본열도로 간 인적 교류의 현황을 고찰하면 4세기말 이래 지속적으로 백제의 왕족과 귀족의 파견이 이루어진 정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왜의 군원이 파견될 때마다 백제에서는 반대급부로 박사(博士) 및 승려 등 전문지식인의 파견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당시 백제와 야마토 왜의 관계가 腆支.昆支.斯我君 등의 왜국 파견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양국의 왕족 간 혼인에 의해 화친 및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백제가 선진문물을 전해주고 일본의 군사력 제공이라는 용병관계가 성립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6세기만이 아니라 아직기와 왕인을 통한 4세기말부터 지속된 백제와 왜의 교류방식이었다.⁵⁾

한편 고대 일본 복식문화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고신라, 가야 모든 국가들에 연결되어 있다. 다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백제 관련 자료들은 그 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서 일본속의 백제계 자료를 찾으려 해도 그 비교자료가 많지 않아서 주로 삼국시대 전체와 일본 복식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들⁶⁾이 이루어져 왔으며, 백제와 일본복식을 비교 연구하는 경우도 주로 의복부분만을 다루는 연구⁷⁾가 있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백제지역의 발굴조사가 늘면서 백제 관련 복식자료들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어 일본 고분시대 복식과 백제와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 목적은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일본 고대 복식문화와 백제 복식문화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대 일본 복식문화에 미친 백제복식의 영향을 실질적인 복식자료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에 있다.

연구 방법은 먼저 일본 고대 문화 전반에 미친 백제문화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고찰하고, 백제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복식들을 의복, 변형모, 대구, 대금구, 금동리, 장신구등으로 분류하여 그 양식을 설명하고 일본 복식 유물들과 비교 분석하여 일본 고대 복식에 미친 백제 복식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II. 일본 고대 문화와 백제 문화와의 관계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실은 다음과 같다.

백제의 정세와 관련지어 백제와 왜 관계를 살펴볼 경우, 첫째, 5세기 전후의 시기 즉, 광개토왕 남정에 따른 백제인을 비롯한 한반도 남부 주민의 이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 위기에 있어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군사적 열세를 왜와의 통교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하려 하였다고 보아진다.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의하면 397년에 阿莘王이 왜와 더불어 동맹을 맺고 태자 전지를 인질로 보내었다고 하며, 『일본서기』에는 같은 해 阿花王이 왕자 직지를 보내어 우호를 맺었다고 한다. 두 번째의 대규모 집단적 이주는 5세기 말의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수도 漢城의 함락과 蓋鹵王의 죽음으로 인한 왕권의 일시적 멸망

기와 7세기 중엽의 백제국가 멸망기에 행하여졌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의 경우, 660년의 신라와 당군에 의한 백제의 멸망으로 전개되었다. 『삼국사기』에 당시 상황을 엿보게 하는 기록이 남아 있다. 왕권과 지배층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이국땅에 잡혀 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멸망기의 혼란한 정세는 백제유민의 왜 지역으로의 이동을 촉진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규모의 백제계 이주민의 수용은 왜인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이 지니고 있던 선진 기술과 지식 및 정신문화 등이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용을 하였다고 생각된다.⁸⁾

한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는 문화전파자인 이주민에 관한 기록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들 사서에는 應神천황의 시대에 秦氏나 漢氏의 선조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귀화 혹은 參渡하였다고 한다.

우선 『고사기』 중권 應神段의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백제의 국주인 소고왕이 솟말 한 필과 암말 한 필을 아지길사에게 붙여서 바쳤다. <이 아지길사라는 자는 아지사 등의 선조이다.> 또 황도와 대경을 바쳤다. 또 백제국에 『만약 현명한 사람이 있으면 바쳐라』명하였다. 그러므로 명을 받아 사람을 바쳤다. 이름이 화이길사였다. 즉 논어 10권, 천자문 1권을 합쳐 11권을 이 사람에게 붙여 바쳤다. <이 화이길사라는 자는 문수등의 조상이다.> 또, 기술자인 대장장이를 바쳤는데 이름은 탁소이고 또 오복공인 서소 두 사람이다.⁹⁾

이와 관련이 있는 전승들이 『일본서기』應神천황조와 雄略천황조에도 보이고 있다.

14년 춘 2월에 백제왕이 봉의공녀를 바쳤는데 이름은 진모진이다. 이는 지금의 내목의봉의 조상이다.¹⁰⁾

15년 추 8월 입술사 정묘에 백제왕이 아직기와 양마 두 필을 보내었다.¹¹⁾

16년 춘 2월에 왕인이 왔다. 즉 태자 토도치낭자의 스승이다. 왕인에게 모든 전적을 배워서 통달하지 못함이 없었다. 이런 이유로 왕인이란 자는 서수 등의 시조가 되었다.¹²⁾

<다른 책에서 말하기를 길비신 제군이 백제로부터 돌아와서 한의 수인부와 의봉부, 혈인부를 바쳤다고 한다.> (雄略천황 7년 시세조)¹³⁾

위의 사료에서도 백제로부터의 絹絲 기술의 전래,

아직기와 왕인의 파견, 아지사주와 도가사주의 이주에 관한 전승이 전하여지고 있다. 이들 문화전파자들에 의해 다양한 문화가 백제를 비롯한 한반도계로부터 전파되었다.¹⁴⁾

일본학계에서는 이들이 고대 왜왕권을 지탱하는 생산계층을 담당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 현재 알려진 신기술로서는 단단한 경질 토기를 만드는 陶部와 고급 견직물을 만드는 錦部와 吳服, 금속 가공을 담당하는 鞍部와 作金人·甲作, 제철과 철기생산을 담당하는 山部와 韓鍛冶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雄略천황조의 전승에서 알 수 있듯이 직조와 재봉 집단인 衣縫部, 요리 집단인 穴人部, 화공집단인 화부와 통역집단인 譯語部도 이주하였다는 전승을 남기고 있다.¹⁵⁾

백제와 왜의 본격적인 교류가 6세기 초를 전후하여 개시되고 호쿠리쿠(北陸), 오미(近江)지역에 백제계 문물이 집중하는 것을 볼 때 게이타이(繼體)세력은 전통적으로 교섭하던 가야세력을 배제하고 백제를 창구로 선진문물을 도입하여 가와치(河内) 세력과의 차별화를 시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⁶⁾

6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백제가 왜에 파견한 사신단은 장군, 관인, 오경박사를 필두로 하는 각종 박사, 승려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문화의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관인, 박사, 승려들이었을 것이고 특히 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¹⁷⁾

또한 고고학적 관점에서 일본과 백제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고고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듯이 왜는 4세기 이래로 중국과의 교섭이 두절된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왜가 중국을 대신하여 교역 중심지로 부상한 백제와의 교역을 열망하고 있었음을 헤아리기 어렵지 않다. 때문에 양국 간의 교역로 개척은 어렵지 않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원통형(圓筒形)토기는 일본열도의 전기고분(4세기 대)에 출현하는 원통 하나와(圓筒埴輪)와 흡사한 형태인데, 이 무렵 백제와 왜의 통교사실을 입증해준다. 5세기 후반이 되면 마한, 백제 토기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백제와의 교섭으로 반입된 토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6세기 대는 백제와 大和정권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

나 백제 토기의 출토 상황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7세기 이후가 되면 백제 토기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주로 사비에서 반입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¹⁸⁾

또한 일본 북부 九州地方에서 한반도계 부뚜막시설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5세기 전엽에서 중엽 취락 유적 내 주거지에서 발굴된 부뚜막시설의 평면유형이 백제지역에서 발굴되는 것과 그 특징이 유사하다는 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¹⁹⁾

횡혈묘(橫穴墓)는 백제의 도읍이었던 공주·부여 지역의 금강유역에만 단편적으로 분포하는 매우 이례적인 묘제이며, 일본의 豊前지역을 중심으로 한 北部九州地方의 초기 地下式 橫穴墓와 축조 방법 및 구조가 아주 유사하여 현재로서는 왜와의 교류를 통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여진다.²⁰⁾

한편 나뭇가지를 깔고 그 위에 흙을 쌓는 부엽공법은 풍납토성과 부여의 사비나성 등에서 확인되고, 일본의 큐수, 오카야마, 오사카 등 광범위하게 걸쳐 발견되며, 대표적인 유적이 아스카시대에 만들어진 오사카의 사야마이케 제방이다. 중국에서 고안된 부엽공법이 일본에 퍼진 데에는 백제계 기술자들의 활약이 그 배경에 깔려 있다.²¹⁾

용봉문화두대도 중에서 무령왕릉 출토품처럼 용문이 장식된 것은 일본열도에서 오사카부 海北塚과 오사카부 一須賀WA1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다. 해북총 출토품은 제작기법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문양과 재질에서 무령왕릉 출토품을 충실하게 모방한 것이다. 청동다리미는 오사카부 다카이다야마고분 등에서 출토되었는데, 특히 다카이다야마고분 출토품은 무령왕릉의 왕비 부장품과 상당히 유사하다.²²⁾ 그리고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의자손수대경(宜子孫獸帶鏡)과 동범경들이, 5세기말에서 6세기 전반의 일본 三上山下고분, 江田船山 고분 등에서 출토되어 백제에서 칠자경(七子鏡)이 전해졌다는 기록을 뒷받침하고 있다.²³⁾

6세기에서 7세기 전반에 걸쳐 아스카문화는 백제 문화가 직수입된 것이다. 아스카사에서 출토된 창건 당시의 와당은 백제에서 출토된 와당과 흡사하며 아스카지역에는 화강암을 정제하여 석실분을 만든 것이 있는데 이것도 부여 능산리 고분군과 같은 백제 고분의 영향일 것이다.²⁴⁾

따라서 이들 일본 고대문화나 고고학 관계 자료들은 백제와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백제 복식과 일본 고대 복식

일본 고대 복식은 우리나라에서 넘어간 도래인(渡來人)들의 복식이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백제인들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기록에 나타난 백제관련 복식관계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應神 14년(283년) 백제에서 옷을 꿰매는 공녀 眞毛津이 건너와서 일본 衣縫의 시조가 되었다.
天智 4년(664년) 백제국의 관위의 계급을 검토하였다(백제 멸망후 다수 도래한 백제인의 관위를 주기 위해서이다)

『扶桑略記』 권3에 의하면

범홍사(7세기 초 완성)를 짓고 불사리를 봉안하던 날, 100여인이 모였는데 모두 '백제옷'을 입고 기뻐하였다.

『三國史記』에 의하면

腆支王 5년(409년) 왜국에서 사신을 시켜 야명주를 보내오매 왕이 특별한 예로써 대우하였다.
腆支王 14년(418년) 여름에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여 흰 포복 열필을 보냈다.

『新撰姓氏錄』 和泉諸蕃조에는

의봉(衣縫)은 백제국신로명(百濟國神露命)에서 나왔다.

『河內國諸蕃』 백제조에는

오복조(吳服造)는 백제국인 아루사에서 나왔다

『未定雜姓』 우호조에는

오씨는 백제국 사람 덕솔오기측(德率吳伎側)의 후

에 이다. 라고 하였다.²⁵⁾

이상의 기록이나 유물 등으로 보아 백제복식은 이미 3세기부터 일본에 건너가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으며 7세기에 이르러 도래인들에 의해 널리 퍼져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백제 복식 중 특히 고구려, 고신라, 가야와 달리 백제만의 독특한 양식을 보이는 복식품만을 선택하여 고대 일본의 유물들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1. 의복

백제금동대향로의 기마인<그림 1>²⁶⁾은 독특한 고

모(高帽)를 착용하고 유고복장을 하고 있는데, 日本竹原古墳壁畫 人物圖<그림 2>²⁷⁾에서 말을 끌고 있는 인물²⁸⁾이 고모를 착용하고 유고양식의 동일한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술한 應神 15년(284년) 백제왕이 아직기를 보내 양마(良馬) 2필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그림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그림의 인물은 당시의 일본 하니와들에서 보이고 있는 무릎부위를 묶는 양식이 아닌 바지 밑에 화를 신어 발목 부위를 줄라매게 되는 전형적인 스키타이식의 유고 양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²⁹⁾ 이것으로 보아 원래 백제에서 들어간 유고양식이 일본의 기후에 맞게 무릎 부위를 묶



<그림 1> 기마인, 백제금동대향로
- <http://www.hyangno.net>



<그림 2> 일본 竹原古墳壁畫 人物圖
- <http://kyuhaku.jmc.or.jp>



<그림 3> 배소를 부는 사람
백제금동대향로
- <http://www.hyangno.net>



<그림 4> 일본
摩耶夫人像
- <http://www.tnm.jp>

는 양식으로 후에 변형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윤양노는 백제금동대향로의 주악상 중 배소를 붙고 있는 연주자<그림 3> 저고리 허리 밑 부분에 너풀거림의 표현은 이중의 치마를 입고 가슴위치에 맨 포백대 겹으로 걸치마의 윗부분을 접어 내려뜨렸다 고 보고 있는데 이와 동일한 양식이 飛鳥時代 法隆寺獻納宝物인 銅製鍍金으로 만든 摩耶夫人像³⁰⁾<그림 4>³¹⁾이 입고 있는 의군(衣裙)은 예복 형식으로 치마 위에 또 하나의 치마, 즉 표상(表裳)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주악상의 치마 착용방법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마야부인상의 머리 모양을 보면 주악상의 귀 옆에 있던 머리가 정수리부분에 가로로 누어져 표현되어 있다. 이 모습 또한 주악상의 머리와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³²⁾고 보고 있다.

2. 관모

한성시기 백제고분에서 발굴된 금동관모는 외형이나 도안, 제작기법으로 보아 일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5세기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같은 시기의 동아시아 각국 자료와도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어 이를 ‘백제양식(百濟樣式)’이라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³³⁾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백제 양식’ 금동제 변형모를 통해서 백제양식의 고분시대 일본 전파를 살펴볼 수 있다.

백제 입점리 고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5>는

2매의 반원형 금동판을 좌우에서 맞붙인 부분에는 복륜(覆輪)으로 둘러싸고 걸은 고기비늘 모양으로 했으며, 하단에는 점렬문(點列文)으로 처리하였다. 배면(背面)에는 긴축을 휘어지게 매달고, 끝 부분에는 반구형의 장식이 붙어 있다.³⁴⁾ 작은 못구멍 같은 것이 관모의 하단부에 현재 네 곳이 있는데³⁵⁾, 이것은 고신라 천마총출토 변형모에서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천으로 된 끈을 매어 달았던 자리로 생각된다.

공주 수촌리 1호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는 관모의 중심이 되는 내관과 전면과 후면의 입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관은 반원형 금동판 2장을 맞대어 만든 것으로 외연에 윤곽선이 둘러져 있고 후면에 긴 대롱이 부착되어 있다. 그리고 내관에는 용문과 화염문, 운문, 당초문이 투조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전후의 입식도 용문과 당초문이 시문되었고 영락도 상당 정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³⁶⁾

고흥 길두리 고분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6>³⁷⁾은 변형모 모양의 구조에 측면은 투조된 심엽형 무늬를 넣었고, 일반적으로 다른 백제계 금동관의 장식물은 뒤쪽에 달려있는 것과 달리 꽃봉오리(긴 대롱이 달린 깔때기 형상) 장식품이 정수리에 꽂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³⁸⁾

이들 금동제 변형모들은 고신라, 가야제에서는 볼 수 없는 뒷면에 긴대롱 장식이 달려 있는 점이 특히 하다 하겠다.³⁹⁾ 물론 고구려나 신라의 경우도 고깔모양의 몸체에 조우형 관식을 부가한 예가 보이지만



<그림 5> 금동제 변형모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고분미술* 1, p. 243.



<그림 6> 금동제 변형모
고흥 길두리 고분 출토
- *보존처리연구*, 30, p. 18.



<그림 7> 일본 금동제 변형모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 <http://www.tnm.jp>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세부 부품의 구성 등에서 차이가 현저하다.⁴⁰⁾

이상과 같은 대롱이 달린 변형모는 일본 고대 관모에도 동일 양식이 보이고 있다.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금동제 변형모<그림 7>⁴¹⁾는 중앙에 얽힌 2마리의 용, 그 외측을 화염문으로 선을 두른 문양을 투조한 2매의 조형(爪形)의 금동제 측판과 반구상의 장식을 붙인 대롱 장식이 붙어 있다. 측판·연금(緣金)에는 다수의 영락이 달려 있다.⁴²⁾ 또한 峯ヶ塚古墳과 十善の森古墳 출토 관모⁴³⁾는 하부가 위쪽으로 활처럼 휘었고 뒤쪽에 대롱 모양의 금구를 부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백제 관모와 제작기법상의 유사도가 현저하다고 한다.

3. 대구, 대금구

1) 마형대구

백제지역인 천안 청당동 출토 마형대구(馬形帶鉤)<그림 8>는 양각의 점문이 귀 뒤에서 시작하여 목선을 따라 배까지 이어져 있고, 갈기에도 양각의 선문이 있다. 허리의 잘록함이 없는 등의 형태이다. 허리에는 종선문 구획에 사격자문을 양각으로 주출하였으며, 좌우로 횡선문이 추가되었다. 다리는 매우 얇고 직립하는데, 일정한 간격으로 양각의 돌기가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에 2개씩 있다. 격판에는 사격자문이 있다. 걸쇠는 배높이보다 아래에서 시작되고,

바닥선과 수평한다.⁴⁴⁾

이와 거의 동일한 양식이 일본 淺川端遺蹟 출토 마형대구<그림 9>⁴⁵⁾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형태와 규모가 비슷하다. 이 마형대구는 청동제이며, 말갈기와 꼬리부분, 복부중앙의 사격자문이 표현된 곳에 약간의 박락현상이 나타나며, 파손된 흔적이 있다.⁴⁶⁾ 이들 마형대구는 갈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허리부위에 종횡선부분에 사격자문을 양각으로 주출하는 방법에서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2) 대금구

공주시 금성동 송산리 2호분 출토 짐승얼굴무늬 대금구(帶金具)<그림 10>는 특히 백제 양식이다. 사각형의 금동판을 짐승얼굴이 새겨진 웅형(雄型) 위에 올려놓고 망치와 같은 도구로 두들겨 고착시켜, 웅형의 짐승얼굴무늬가 금동판에 옮겨지도록 하여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늬가 표현된 금장식이 분포하는 특징으로 보아 백제, 가야, 일본 사이의 문화적 관련성을 살필 수 있다. 특히 백제에서는 웅진도읍기 이후, 공산성이나 무령왕릉 출토유물 등에 짐승얼굴무늬를 도안화한 유물들과 웅형으로 무늬를 표현한 기법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 백제 웅진 도읍기 이후 가야나 일본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⁴⁷⁾

일본 八丁鎧塚 2 号墳 출토 대금구<그림 11>⁴⁸⁾는 금동의 방형판에 짐승얼굴무늬를 장식하고 방형의 모서리 4곳에 원형의 홈이 파여져 있다. 방형판 중앙



<그림 8> 마형대구
천안 청당동 출토
- <http://museum.nonsan.go.kr>



<그림 9> 일본 마형대구
일본 淺川端遺蹟 출토
- 백제와 고대일본의 문화교류, p. 29.



〈그림 10〉 대금구
공주 송산리 2호분 출토
- <http://www.museum.go.kr>



〈그림 11〉 일본 대금구
일본 八丁鎧塚 2号墳 출토
- <http://www.city.suzaka.nagano.jp>



〈그림 12〉 금동리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익산 입점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p. 102.



〈그림 13〉 금동리
공주 무령왕릉 출토
- *한국미술전집*, 2, p. 100.



〈그림 14〉 일본 금동리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 <http://www.tnm.jp>



〈그림 15〉 일본 금동리
일본 藤ノ木 古墳 출토
- *日本美術*, 4, 第36図

에 짐승얼굴 모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타출하여 제작하였는데, 압출기법으로 제작한 송산리 대금구와 달리, 이 대금구는 주조기법으로 형태를 만든 후 음·양각 기법으로 마무리 하였다. 기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같은 짐승얼굴무늬 대금구는 삼국 중 백제 지역에서만 출토되고 있으므로 이것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⁴⁹⁾

4. 금동리

익산 입점리 출토 금동리〈그림 12〉는 2매의 금동판을 신발의 앞코와 뒤축 부분에서 고정시킨 다음 별도로 제작된 바닥판을 덧댄 후 고정시켰다. 바닥판에는 사각추 모양의 스파이크 10개를 부착하였다. 표면과 바닥면에는 사각형 연주상(連珠狀)의 격자무늬를 새기고 그 안에 꽃무늬를 새겨 넣었다.⁵⁰⁾

무령왕릉 출토 왕의 금동리〈그림 13〉는 왕의 신발은 내측판, 외측판, 바닥판의 3판을 서로 붙여 만들었다. 각 판은 다시 안에 은판이 있고 그 밖에 금동

판을 덧댄 것이다. 신발속에는 3종의 布가 붙어있고 얇은 나무껍질이 함께 나왔는데 바닥에 깔았던 것으로 보인다. 바닥은 앞부분이 조금 들려있고 10개의 철판이 박혀 있는데 단면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사각추모양이다. 내측판의 표면에는 전면에 거북등무늬가 구획되었는데 그 안에는 꽃잎무늬를 장식하였다. 외측판 역시 귀갑문이 타출되어 있는데 내부에 꽃잎무늬와 더불어 봉황이 표현되어 있다.⁵¹⁾

일본 江田船山 古墳 출토 금동리〈그림 14〉⁵²⁾는 측면과 밑바닥에 귀갑문을 장식하고, 귀갑의 각 정점에는 영락을 매달고 있으며 밑바닥에는 9개의 방추상(方錐狀) 스파이크를 부착하고 있다.⁵³⁾ 한 개의 바닥판과 2개의 측판(側板) 등 모두 3매의 금동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藤ノ木 古墳 출토 금동리〈그림 15〉⁵⁴⁾는 2매는 측판으로, 1매는 바닥판으로 총 3매의 금동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인 형태는 주형(舟形)으로서 저부에는 바닥판과 연결시킨 흔적이 나타난다. 전면상단

에는 열점문(列点文)을 2열로 배치하였으며, 중앙부에는 귀갑문을 선조(線彫)하였는데, 귀갑문 밖으로는 3조의 윤곽선을 돌렸다. 표면에는 1.5cm 원형 장식품 약 150여개를 부착하였다. 신발의 내면에는 무령왕릉 신발과 마찬가지로 마포가 부착된 흔적이 있다.⁵⁵⁾

吉井秀夫는 이들 신발들은 모두 두장의 측판을 발등 쪽과 발뒤꿈치 쪽에서 고정시켜 만든 신발이므로 이들은 백제계 신발로 보아도 무난하다⁵⁶⁾ 고 하였다

5. 장신구

장신구 중에는 특히 의복이나 머리 등을 장식한 장식품과 귀고리 양식에서 백제와 일본에서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화형, 나선형 장식품

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금제 화형(花形) 장식품 <그림 16>은 6엽이나 8엽으로 만들어져 있고, 중앙에

가운데 구멍이 뚫린 돌출된 반구형을 두고 옆 둘레 전체를 소공(小孔)을 뚫어 장식하고 있다. 이같은 양식은 일본 一須賀 古墳 출토 금제 화형장식품<그림 17>⁵⁷⁾에서 동일 양식을 발견할 수 있다. 6엽 화형장식은 중앙에 돌출된 반구(半球)를 두고 동체 전면에 작은 구멍을 뚫어 장식적 효과를 높였다. 모두 6세기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⁵⁸⁾ 이외에 大版峯ヶ塚 古墳 출토 금동과 은판으로 만든 화형장식품은 섬유에 부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花卉에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고자는 50-60개의 화형식이 布地에 꿰매 달려 있었던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백제와 일본 고분에서 출토되는 이같은 구멍이 뚫린 장식품들은 다른 것들에도 장식했겠지만 주로 의복장식품으로 애용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무령왕릉 출토 금제나선형장식품<그림 18>⁶⁰⁾은 단면이 원형인 금줄을 빙빙 돌려 말아서 나선형을 이루게 한 것인데 봉형 물체의 외장(外裝)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다.⁶¹⁾ 일본 新澤千塚126号



<그림 16> 금제 화형장식품
부여 능산리 고분 출토
- 특별전 백제, p. 167.



<그림 17> 일본 금제 화형 장식품
일본 一須賀W1號 古墳 출토
- <http://bcrc.kongju.ac.kr>



<그림 18> 금제나선형장식품
공주 무령왕릉 출토
- 백제조각·공예도록, p. 213.



<그림 19> 일본 금제나선형장식품
일본 新澤千塚126号墳 출토
- <http://www.tnm.jp>

墳 출토 금제나선형장식품<그림 19>은 거치문이 장식된 원형의 장식품과 이 장식을 고정시켰을 못 같은 부속품이 함께 수습되었다. 일본에서는 이 나선형 장식의 용도를 범룡사 헌납보물의 하나인 48체불상의 귀 부근에서 어깨부분까지의 영락을 연결해 주는 장식품과 같은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⁶²⁾, 또는 머리 카락을 유리봉에 말아 묶어 삼입시켜 관자놀이부터 옷깃까지 늘어뜨리는데 사용한 발식(髮飾)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⁶³⁾

2) 귀고리

익산 입점리 1호묘 출토 세환식 귀고리<그림 19>는 주환에 금사(金絲)를 걸어 늘어뜨린 다음 긴 체인형태의 연결고리 아래 끝에 삼익형(三翼形) 수하식을 매달았다.⁶⁴⁾

이는 백제만의 양식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동일한 형태가 일본 大坊 古墳 출토 금제 귀고리<그림 20>⁶⁵⁾에서 볼 수 있다. 삼엽으로 처리된 수하식의 형태나 수하식을 주환에 연결하는 방식에서 그 유사함⁶⁶⁾을 보여준다.

부여 능안골 고분군 32호분 출토 금제 복엽식 심엽형귀고리<그림 21>⁶⁷⁾는 중간식과 연결금구가 하나로 제작된 귀고리로, 수식부는 복심엽형이다. 구성은 세환의 고리, 세환과 수식을 이어주는 중간수식, 수

하식으로 분류되는데 모두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 중간 수식은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은 아주 작은 편구형이고 편구형장식 상하로는 대칭 형태를 띠고 있으며, 상부의 세환과 하부의 수식부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구멍이 마련되어 있다.⁶⁸⁾

이 양식도 백제에서만 볼 수 있는 형태인데 거의 동일한 양식의 귀고리가 일본 八幡大家二號墳 출토 귀고리<그림 22>⁶⁹⁾에서 볼 수 있다. 중심고리와 연결고리 그리고 수식부(垂飾部)로 구성되어 있다. 중심고리는 동환(銅環)에 금박을 입혔다. 심엽형(心葉形)의 끝장식은 만곡(彎曲)한 형태로 앞, 뒷면에 원형금판을 추가하였다.⁷⁰⁾

이들 귀고리는 고신라나 가야에는 없는 세환식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연결하는 독특한 백제식 방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일본 고대 복식문화와 백제 복식문화와의 상관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고대 한일 복식문화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의복에 있어서는 고모(高帽)를 쓰고 바지 밑에 화를 신어 발목 부위를 줄라매게 되는 유고 양식과 여자들의 경우 치마를 입고 가슴위치에 맨 포백



<그림 19> 귀고리
익산 입점리 고분 출토
- 특별전 백제, p. 136.



<그림 20> 일본 귀고리
日本 大坊古墳出土
- <http://nonta-space.net>



<그림 21> 귀고리
부여 능안골 고분군
32호분 출토
- 백제의 미, 도판 28



<그림 22> 일본 귀고리
日本 八幡大家2號墳
- <http://bcrc.kongju.ac.kr>

대 걸으로 걸치마의 윗부분을 접어 내려뜨리는 이중 치마를 입는 양식에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모에서는 금동제 변형모들이 뒤쪽에 대롱모양의 금구를 부착한 흔적이 남아 있어 백제 관모와 제작 기법상의 유사도가 현저하다고 한다.

대구와 대금구에서는 마형대구는 갈기를 표현하는 방법이나 허리부위에 종횡선부분에 사격자문을 양각으로 주출하는 방법에서, 대금구는 짐승얼굴무늬 장식에서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다.

금동리는 모두 두장의 촉판을 발등 쪽과 발뒤꿈치 쪽에서 고정시켜 만드는 양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장신구는 의복장식품에서는 화형장식품이나 나선형장식품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귀고리에서는 한가지는 삼익형(三翼形) 수하식과 이것을 연결하는 체인식 양식에서, 또 다른 하나는 세환식과 심엽형의 수하식을 연결하는 독특한 백제 양식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고대 일본의 복식들은 많은 부분에서 백제 복식의 영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가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 연구에 작은 도움을 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더 많은 백제나 고대 일본관련 유물들이 출토되면 계속적인 수정 보완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일본 '고대'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백제와 연관된 일본의 시대가 야요이(弥生)시대, 고훈(古墳)시대, 아스카(飛鳥)시대에 걸쳐 있었기 때문이나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훈(古墳)시대 유물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 대체로 일본인의 체구가 작아 왜인(矮人)이라는 말이 변하여 '倭'가 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이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지 않게 된 것은 『신당서(新唐書)』 이후이며 한국도 일본과 친교가 있었던 백제 때부터라 여겨진다. 일본에서도 7세기 중반에 국호를 일본이라 칭하기까지는 왜의 5왕(王)이 왜 국왕이라 자칭하기도 하였다. 자료검색일 2011. 11. 2. <http://100.naver.com/100.nhn?docid=11755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참고자료에 있는 데로 왜와 일본을 혼용하여 적기로 한다.
- 김현수 (2010), 6세기 백제의 대외외교 양상과 의미, *한국학논총*, 34, p. 166.
- 吉井秀夫 (1999), 일본(日本) 속의 백제(百濟), *백제 특별전*, 국립중앙박물관 편, 서울: 통천문화사, p. 242.
- 홍성화 (2010), 4~6세기 百濟와 倭의 관계, *한일관계사연구*, 36, pp. 3-4.
- 김문자 (1980), 한일 고대복식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金基雄 (1981), 裝身具, *日本文化의 源流로서의 比較韓國文化*, 東北亞細亞研究會 編, 서울: 三省出版社.
김문자 (1996), 古代 韓日 裝身具 比較 研究, *복식*, 29, pp. 99-115.
- 김미자 (1993), 우리나라 삼국시대 의복과 일본 의복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영미 (2003), 일본 고분시대(450-650)복식과 백제복식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복식*, 53(2), pp. 17-33.
- 정효운 (2006), 百濟와 倭의 문화 교류 양상에 관한 일고찰, *日語日文學*, 31, pp. 283-284.
- 亦百濟國主昭古王, 以牡馬一疋·牝馬一匹, 付阿知吉師以貢上. <此阿知吉師者, 阿直史等之祖.>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人 卽貢進. <此和邇吉師者, 文首等祖.> 又, 貢上手人韓鍛, 名卓素, 亦吳服西素二人也.
- 十四年春二月, 百濟王貢縫衣工女. 曰眞毛津, 是今來目衣縫之始祖也.
- 十五年秋八月壬戌朔丁卯, 百濟王遣阿直岐, 貢良馬二匹.
- 十六年春二月, 王仁來之. 則太子菟道稚郎子師之. 習諸典籍於王仁. 莫不通達. 故所謂王仁者, 是書首等之始祖也.
- <或本云, 吉備臣弟君還自百濟, 獻漢手人部, 衣縫部, 穴人部.> (雄略天皇 7年[463] 是歲條)
- 『일본서기』나 『고사기』등에 의하면 應神天皇은 3세기 말(270년)에서 4세기 (310년)에 재위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지만, 주지하다시피 『일본서기』와 『삼국사기』 사이의 기록들은 2주갑(周甲: 120년)의 차이(1)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문헌에 보이는 왜 왕권과 국가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준 다양한 문화전파자들의 대규모 이주는 고대 한국의 정세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4세기 대의 일이 아니라 5세기 대의 역사적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정효운, *op. cit.*, p. 287.
- Ibid.*, pp. 286-287.
- 박천수 (2006), 3~6世紀 韓半島와 日本 列島의 交涉, *한국고고학보*, 61, p. 23.
- 이근우 (2010),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보이는 오경박사(五經博士)와 오음(吳音), *일본역사연구*, 31, p. 6.
- 土田純子(2011), 일본(日本) 출토(出土) 백제(百濟)(계(系))토기(土器): 출현(出現)과 변천(變遷), *백제연구*, 54, p. 48.
- 유재병 (2006), 5~6世紀 百濟 住居·煖房·墓制文化의 倭國 傳播와 그 背景, *한국사학보*, 23, p. 63.
- 이호형 (2008), 公州 丹芝里 橫穴墓群을 통해 본 古代 韓日交流, *한국고대사연구*, 50, p. 255.
- 권오영 (2010), 연구 동향: 일본 나라분지 남부의 최신 발굴조사 성과, *백제학보*, 10(3), pp. 104-105.
- 서현주 (2004), 4~6세기 백제지역과 일본열도(日本列

- 島)의 관계, *호서고고학*, 11, p. 50.
- 23) 국립중앙박물관 편 (1999), *백제 특별전*, 서울: 통천문화사, p. 108.
- 24) 西谷正 (2008), 일본속의 백제계(百濟系) 유적과 유물, *백제문화*, 38, p. 37.
- 25) 권태원 (2004), *백제의 의복과 장신구*, 서울: 주류성, pp. 96-97.
- 26) 자료검색일 2011. 11. 12, http://www.hyangno.net/digital/popup.htm?L_IMG_File=../L_VR_image/L_VR_53_I_2.gif
- 27) 자료검색일 2011. 11. 15, http://kyuhaku.jmc.or.jp/index.php?g=d_frame.php&index=&PCD=40&KNO=25&SEQNO=7
- 28) 자료검색일 2011. 12. 13, http://kyuhaku.jmc.or.jp/index.php/1/-/-/-/-/-/_m_frame.php
- 29) 김문자 (1980), *op. cit.*, p. 62.
- 30)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 마야부인상은 아스카시대(飛鳥時代 552-645)에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시대 부인의 예장 형식을 볼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당시의 여자의 복장은 수령(垂領)의 단의(短衣) 위에 가슴위치에서 군(裙,裳)을 걸쳐 입었는데, 이전시대의 하니와에서 보여 지는 착장은 치마를 입고 그 위에 의를 입는 것과는 정반대의 착장방식이다. 윤양노 (2011), 백제금동대향노 주악상 복식재현을 위한 연구, *국악원논문집*, 23, pp. 102-103.
- 31) 자료검색일 2011. 12. 19, http://www.tnm.jp/uploads/r_collection/LL_69.jpg
- 32) 윤양노, *op. cit.*, pp. 102-103.
- 33) 이한상 (2008), 百濟 金銅冠帽의 製作과 所有方式, *한국고대사연구*, 51, p. 92.
- 34) 유적조사연구실 (1989), *익산 입점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 서울: 문화재연구소, pp. 29-30.
- 35) 이호관 (1997), *한국의 금속공예*, 서울: 민예출판사, pp. 102-103.
- 36) 이남석 (2007), 백제 금동관모 출토 무덤의 검토, *先史와 古代*, 26, pp. 223-224.
- 37) 서정은 (2009), 고흥길두리 안동고분출토 금동관모의 수습과 보존처리(II), *보존과학연구*, 30, p. 18.
- 38) 서정은 (2008),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모의 수습과 보존처리(I), *보존과학연구*, 29, p. 96.
- 39) 김문자 (2008), 삼국시대 관모 및 관식 유물 감정을 위한 기준 설정, *복식*, 58(5), p. 16.
- 40) 이남석 (2008), 百濟 金銅冠帽의 製作과 所有方式, *한국고대사연구*, 51, p. 89.
- 41) 자료검색일 2011. 12. 10, http://www.tnm.jp/modules/r_collection/index.php?controller=other_img&size=L&colid=J786&img_id=2&t=type&id=1
- 42) 자료검색일 2011. 12. 22, http://www.tnm.jp/modules/r_collection/index.php?controller=dtl&colid=J786&t=type&id=1
- 43) 서현주, *op. cit.*, pp. 48-49.
- 44) 김성욱 (2011), 한반도 마형대구의 편년과 지역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45) 자료검색일 2011. 12. 12, http://museum.nonsan.go.kr/html/museum/sub02/pop_02_03_t05.html
- 46) 정상기 (2009), 백제와 고대일본의 문화교류, 대전선사박물관 제5회 열린강좌 10강 강의자료, p. 29; 자료검색일 2011. 11. 12, http://museum.daejeon.go.kr/home.do?stsgun=&method=notice_viw&bbs=data&d_no=5373&mno=data_04
- 47) 자료검색일 2011. 11. 14,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Detail.jsp?menuID=01005002001&relicID=679&relicDetailID=2713&keyWord=%ED%97%88%EB%A6%AC%EB%9D%A0&searchSelect=NAME¤tPage=1&pageSize=10&back=relicSearchList>
- 48) 자료검색일 2011. 11. 19, <http://www.city.suzaka.nagano.jp/enjoy/shisetsu/hakubutsukan/shiryou/#top>
- 49) 정상기, *op. cit.*, p. 30.
- 50) 이영훈, 신광섭 (2004), *고분미술 1*, 서울: 서울판사, p. 244.
- 51) 자료검색일 2011. 11. 19, http://www.heritage.go.kr/culture_2008/kor/search/pop_search_view.jsp?pk=PS01001004001000686000AE
- 52) 자료검색일 2011. 11. 19, http://www.tnm.jp/modules/r_collection/index.php?controller=dtl_img&size=L&colid=J801&t=type&id=1
- 53) 자료검색일 2011. 11. 20, http://www.tnm.jp/modules/r_collection/index.php?controller=dtl&colid=J801&t=type&id=1
- 54) 町田 章 (1997), *日本の美術 4, 古墳時代の装身具*, 東京: 至文堂, 第36図
- 55) 정상기, *op. cit.*, p. 20.
- 56) 吉井秀夫, *op. cit.*, p. 248.
- 57) 자료검색일 2011. 12. 22, http://bcrc.kongju.ac.kr/other/BCRC_2/remains2/remain1_26a.htm
- 58) 정상기, *op. cit.*, p. 21.
- 59) 町田 章, *op. cit.*, pp. 58-59.
- 60)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백제·조각공예도록*, p. 214.
- 61) 문화재관리국 편 (1974), *武寧王陵*, 서울: 삼화출판사, p. 25.
- 62) 자료검색일 2011. 12. 20, http://bcrc.kongju.ac.kr/other/BCRC_2/remains/remain1_31.htm
- 63) 町田 章, *op. cit.*, pp. 54-55.
- 64) 이한상 (2000), 백제이식에 대한 기초적 연구-편년·제작기법·분포-, *호서고고학*, 3, p. 30.
- 65) 자료검색일 2011. 12. 12, <http://nonta-space.net/kodai/kodai5.htm>
- 66) 서현주, *op. cit.*, p. 48.
- 67) 국립부여박물관 편 (2006), *백제의 미*, 서울: 한길사, 도판 28.
- 68) *Ibid.*, 유물해설 28.
- 69) 자료검색일 2011. 11. 12, http://bcrc.kongju.ac.kr/other/BCRC_2/remains/remain1_33a.htm
- 70) 자료검색일 2011. 11. 12, http://bcrc.kongju.ac.kr/other/BCRC_2/MainFrame4.htm